



이 용 / 축산시험장 기금과
<지난호에 이어 계속>

9. 질병예방 및 치료

핑의 질병은 닭의 질병과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사육규모의 차이에 국한된 것이다. 근래에 와서 핑사육 규모가 커지는 추세에서 닭과 같은 전염병 예방체계를 수립해야 하는데 특히 전염병중 뉴캐슬병(ND)은 정기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세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한편으로 질병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무관심과 다름없는 일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해 주어 핑이 살기에 알맞은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핑은 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운동장 및 침실을 건조하게 해주어야 한다.

○ 핑은 아직 순화가 안된 야생 조류이므로 겁이 많기 때문에 잘 놀라고 피가 많기 때문에 숨으려는 습성이 있으므로 조용한 곳에서 깨끗한 야채나 물을 충분히 준비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1) 소화기 질환

모든 조류와 마찬가지로 질병의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화기 질환은 초생추에서 온도관리 불량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온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① 식체(소낭염)

○ 원 인

식체 또는 소낭염이라고 불리는 데 평소의 모이량 만큼 먹지 않는 데 이는 온도관리 불량으로 모이 주머니가 막혀 굳어져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다.

○ 증 상

시간이 경과해도 섭취된 모이가 줄지않고 소낭이 부풀어 오르고 깃털을 움직이지 못한다.

○ 치 료

모이주머니를 가볍게 마사지하여 주고 포도주나 피마자유를 2~3방울 스포이드로 주입해 주면 완쾌될 수 있으나 중증은 만 하루가 경과되어도 모이주머니에서 뭉친

모이가 풀리지 않으면 외과적으로 절개해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봉합해 주고 봉합부위를 소독약으로 소독해 주면 된다.

○ 예 방

신선한 물, 녹이(청채)사료를 충분히 주고 온도를 적절히 높여주고 모이통이나 바닥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모래를 넣어주는 것도 예방 치료법이 된다.

② 설사

○ 원 인

오염된 물이나 부패된 사료를 먹었거나 청채사료 과식 또는 감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증 상

항문주위 깃털이 더러워져 있거나 몸을 웅크리고 움직이지 않는다.

○ 치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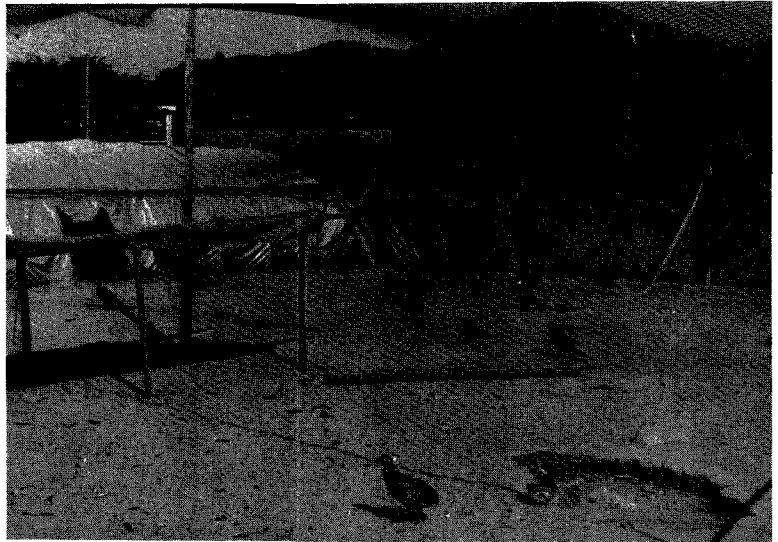
○ 가벼운 증상: 패분과 숯가루를 반반씩 섞어 자연스럽게 쪼아 먹게 한다.

○ 중증시: 지사제(로페린 정로환)등과 항생제(테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등)를 먹이거나 청주를 스폴이드로 먹여도 효과적이다.

③ 장 염

○ 원 인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나 원발성 또는 전신성 질병의 원인으로 올 수 있고 부패된 사료, 오염된 물을 먹었을 때와 갑작스러운 저온으로 인한 장애시, 고양이나 개 기타 짐승에서 습격당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온다.



○ 증 상

항문주위 깃털이 설사로 인해 지저분해지며 점차 쇠약해진다. 심한 경우 혈변이 동반되기도 한다.

○ 치 료

심한 설사로 체온이 내려가므로 보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약제로는 항생제(클로람페니콜, 테라마이신, 프라조리 등)를 먹인다.

한편 기생충의 원인시 구충제를 먹여 구충하면 효과를 볼 수 있고, 장염은 설사증과 증상이 유사하니 주의해야 한다.

(2) 영양장애로 인한 질병

① 카니발리즘

카니발리즘은 부리로 동료의 항문이나 깃털, 날개쪽지, 머리 등을 쪼아 털을 뽑거나 상처를 내게 하는 습성을 말하는데 이는 밀집

군사나 무기질 부족시 올 수 있다.

○ 사육장이 사육 마리수에 비해 적을 때

○ 부화일수가 다른 평병아리와 합사시킬 때

○ 영양소의 부족 및 불량한 환경조건 등이다.

○ 발생시기

부화직후부터 발생되나 눈으로 관찰되는 시기는 7일정도 지나야 알 수 있다.

○ 예방 및 대책

쪼는 습성이 강한 개체와 피부가 더럽거나 피가 묻어 있는 개체를 격리시키며 항문이나 벗에서 악취나 나는 개체는 약을 뿌리고 상처부위는 약제(목탈)를 발라준다.

부화후 2주일경에 반드시 부리 자르기를 해준며, 또한 부화후 45~60일경에 안경을 씌워서 카니

발리증 발생을 억제하여 주는 방법과 성장에 따라 사육면적을 늘려주고 녹이(청채)사료, 광물질비타민 등이 부족되지 않도록 사료를 조절해준다.

② 각약증

각약증은 일명 소아마비병이라 한다.

○ 원 인

종평의 영양부족, 부화기술의 미숙, 육추과정에서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이 병이 발생된다.

○ 증 세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발가락 일부가 휘거나 관절이 붓는 증상이 온다.

○ 예방 및 치료

칼슘, 인, 비타민D₃ 등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사양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핍 전용사료 급여로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핍은 알곡사료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콩 등 단미사료만 급여 시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3) 내외부 기생충성 질병

① 개선충증(음벌레증)

○ 원 인

개선충증(음벌레)은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특히 가두¹ 사육한 핍에서 많이 나타나며 이 개선충은 핍의 상피세포에 기생한다.

○ 증 상

주발생부위는 눈, 부리, 다리, 가슴, 항문 주변인데 개체에 따라 전신에 퍼지는 증상으로 가려움증을 볼 수 있다.

중증으로 윗부리 변형이나 발톱이 빠지거나 구부러진다.

○ 치 료

개선충을 구충하기 위해서는 살충제가 가장 좋으나 위험하므로 전문 수의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구충효과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수용액으로 된 살충제를 털표면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충분히 뿌려주고 딱지가 제거된 후 또 1~2주일더 뿌려주면 완치될 수 있다.

살충제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1회 뿌려준 후 3~5일후 2차 뿌려준다.

② 조충증

○ 증 상

설사를 장기간 계속하나 별로 원기가 없거나 식욕부진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다.

조충은 대변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

○ 치료와 예방

구충 약제로는 비티오놀이 가장 효과적이며 예방으로 중간숙주인

벼룩이나 개미 등을 구제한다.

(4) 전염성 질병

① 핍 뉴캐슬 (ND)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호흡기질병으로 닭에서와 같이 핍에서도 치명적으로 나타난다.

○ 증 상

이 병은 식욕폐절로 녹색설사, 마비, 경련, 선회운동, 갈증 등이 나타나 폐사된다.

○ 치료 및 예방

치료는 없고 예방은 농장내 외부인 차량 및 장비 등의 반입시 소독하고 예방은 주사제와 음수용이 있는데 주사용은 불편하므로 음수용으로 예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예방접종시 주의사항

○ 뉴캐슬이 발생시 백신접종 금지

○ 음수접종시 백신투여전 2~3시간 절수시킬 것

(5) 기타 질환

① 식란증

○ 원인 및 증상

평상시 영양의 불균형 특히 산

백 신	접 종	백신접종시기				
		1차 (5~7일령)	2차 (12~14일령)	3차 (21~28일령)	4차 (8주령)	보강접종 (16~18주령)
생독(B ₁)	음 수					
사 독	주 사					

란기때 칼슘의 부족이 그 원인이며, 낡은 알을 깨어 먹는 버릇이다.

○ 치료대책

알을 낳기 15~20일전부터 의란(모형알)이나 탁구공을 넣어주어 버릇을 고치는 하나의 방법과 영양적인 측면에서 패분(조개껍질)이나 오징어 뼈가루를 충분히 준다.

10. 장래성 및 수익성

평사육은 다른 가축보다 영농규모가 적은 농가에서 부업 내지는 전업 형태로 사육이 용이하고 소자본으로도 사육이 가능하며 비교

적 좁은 공간에서 취미를 충족시키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평의 연간 증가율은 2만수('88)→20만수('89)→200만수('90추정) 매년 10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와 공급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3,000만수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나 현재 가격이 높은 관계로 소비층이 적으며 식품공장과 생산자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사육농가 측면에서 분양위주로 경영하고 있어 앞으로가 문제이다. 따라서 사육농가는 하루 빨리 분양

위주 경영형태에서 탈바꿈하여 가격을 낮추고 식육판매와 관상용, 박제용으로 생산하고 자유무역화되어 가는 요즘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또한 소비자의 육류 소비성향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서 양보다는 질적인 면으로 고급화되어 가고 있어 꿩고기 수요가 증가되리라 기대되며, 다른나라 꿩보다 아름다운 특징이 있어 박제용, 관상용으로도 많은 수출이 선평적일 수 있다고 보면서 우루과이 협상에 관련된대로 축산업의 대처 작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연재 끝)

성 암 부 화 기

성암축기에서는 원적외선발생 시스템을 적용한 전자동 부화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규 격

기 종	적 란 수	비 고
SEM-1	1,000개	생육기, 발생기 겸용
SEM-2	1,500개	"
SEM-3	2,100개	"
SEM-4	5,000개	생육기, 발생기 별도
SEM-5	10,000개	생육기, 발생기 별도

※ 성암부화기의 기능은 전자동제어방식입니다.

- ① 오골계, 왕우렁이 분양중
- ② 오골계 병아리분양
- ③ 왕우렁이 종패분양(사육기술서적 제공)

■ 특 징

- 1. 온도(선택식 전자동)
- 2. 습도(선택식 전자동)
- 3. 기실내 기공순환(자동 FAN순환방식)
- 4. 환기방법(매 3시간마다 신선한 공기 투입)
- 5. 전란방법(매 3시간마다 자동식으로 전후 45도 전란)
- 6. 원적외선 발생 시스템 도입

제조원 : 성 암 축 기

서울시 강남구 대치 2동 316
(은마종합상가 A-70 지하층) (02) 567-8231